



■ KIA 미야자키 전훈 소식

4년 만에 부활投 장전

이대진(33·KIA·사진)의 이름 앞엔 항상 '비운의 에이스'란 말이 따라붙는다. 한때 포스트 선동열로 주목 받았던 그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3차례나 어깨 수술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 한국프로야구 26년 역사에서 이대진만큼 오랫동안 부상에 시달린 선수도 없다. 한때 심각하게 은퇴를 고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꼭 달성하고 싶은 꿈이 있어 마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지난 97년 최다승인 17승(6패)으로 팀에 9번째 우승을 안겨준 그는 10번째 우승도 꼭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이대진은 올 시즌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배수의 진'을 쳤다.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100% 소화하고 있다. 몸 상태도 최상이라고 말한다. 부상 재발을 우려해 절대 무리한 훈련도 하지 않는다. 단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한 계단씩 밟아왔고, 이젠 몸 상태를 90%까지 끌어올렸다고 한다. 일본 미야자키 휴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팀 스프링 캠프에 참가 중인 이대진이 올 시즌 부활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꼭 3년 만에 스프링캠프에 참가한 이대진은 " 그동안 부상으로 재활만 해왔기 때문에 올 시즌은 부상없이 한 시즌을 보내는 것이 목표다. 현역 선수로서 팀의 열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93년 광주 진흥고를 졸업하고 KIA 전신 해체에 입단한 이대진은 데뷔 첫 해 10승(5패)을 올리며 특급 에이스로 떠올랐다.

그는 95년과 98년엔 탈삼진왕을 차지했고, 97년엔 17승 6패 평균자책점 3.14로 골든 글러브의 영광도 누렸다. 98년까지 개인 통산 76승을 거뒀다. 하지만 부상이 잦아진 그의 발목을 잡았다. 99년 어깨 부상으로 쓰러진 후 지난해까지 재활을 반복했다. 2002년엔 당시 김성한 감독의 권유에 따라 타자로 전업하기도 했다. 그해 7월28일 잠실 경기에서는 LG의 특급 마무리 이상훈을 상대로 3타점짜리 결승 3루타를 뽑아내기도 했다.

이대진은 시즌이 끝난 뒤 다시 마운드로 돌아왔다. 2003년 5월11일 인천 SK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1실점의 쾌투로 2년8개월여만에 감각의 승리투수가 됐다. 통산 85승. 그러나 등판 후유증으로 다시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이후 단 한번도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KIA 구단은 성실한 그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연봉을 동결해가며 끝없는 믿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대진도 자신을 믿어준 구단에 'V10' 이란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한다. 이대진은 요즘 이틀에 1번씩 70~80% 강도로 피칭을 하며 올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

김봉근 KIA 투수코치는 "현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어깨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1주일 정도 선발로 나가는 로테이션을 구상중"이라면서 "아프지만 않는다면 (이)대진이는 분명히 제 몫을 해낼 선수"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월 중순 판 전지훈련에 이어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 참가중인 이대진은 "몸 상태는 최상이다. 피칭을 해도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무리하지 않고 3월 초 실전 등판을 목표로 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강한 승부욕을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연훈



이호신

루키들 흥백전서 불꽃打

이호신 6타수 3안타...김연훈 5타수 2안타



"새내기" 이호신, 김연훈 실전도 OK!

지난 13일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 구장에서 열린 KIA의 자체 흥백전에서 신인 이호신과 김연훈이 불꽃타를 뽐냈다.

백팀 2번타자 겸 우익수로 나선 이호신은 6타수 3안타 1득점으로 최절정의 방망이 감각을 선보였고, 5번 김연훈(3루수)도 5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으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백팀 선발 이동현은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던진 임준혁은 2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3번째 투수 전병두는 1이닝 1탈삼진 무실점, 양현종은 2이닝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마지막 투수 박정태는 2이닝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완봉투를 선보였다.

홍팀은 이종범의 4타수 2안타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후속타 불발로 영패를 당했다. 다만 진민호와 오준형의 무실점 호투가 위안이 됐다.

홍팀 두번째 투수로 나선 진민호는 2이닝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고, 네번째 투수 오준형도 2이닝동안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피칭을 펼쳤다.

서정환 KIA 감독은 "이호신과 김연훈이 실전에서도 잘해주고 있다"면서 "마운드에선 임준혁, 양현종, 진민호, 오준형 등의 활약이 눈에 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선배들이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유제국 탬파베이행

서재응·최희섭과 한솔밥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투수 유제국(24·전 시카고 컵스·사진)이 서재응(30), 최희섭(28·이상 탬파베이 데블레이스)과 한솔밥을 먹게 됐다.

탬파베이 데블레이스는 14일(한국시간) 유제국을 데려오는 대신 컵스에 마이너리그 외야수 앤드류 로페스와 우완 그레 라인하드를 내주는 1대 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컵스에 입단했던 유제국은 6년만에 동지를 옮겨 서재응, 최희섭과 한 팀에서 뛰게 됐다.

지난 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유제국은 10경기(1차례 선발 등판)에 등판했으나 승수 없이 1패에 방어율 8.40에 그쳤다.

유제국은 새 동지 탬파베이에서 제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전망이다.

올시즌 탬파베이는 스타 카즈미어, 케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타격감을 조율했다.

그는 '산케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오가사와라의 타격 방법은 타격 타이밍을 잡기보다 볼을 기다릴 때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승엽은 이날 처음 20번째 스윙까지는 버스터로 일관했고 이후 20번의 스윙은 철저히 밀어치는 데 집중했다.

이 마지막 10번째 스윙 때는 파워 넘치는 풀스윙으로 7차례나 펜스 바깥으로 타구를 날렸다. 몸쪽 높은 공을 빠르고 날카롭게 잡아채는 연습에 매진했던 이승엽은 16일 팀의 세번째 청백전부터 출장을 앞두고 공의 코스에 따라 밀어치기와 잡아당기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출격 준비가 완벽히 끝났음을 알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앤디 머레이 혼신의 리시브

앤디 머레이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남프론테니스(ATP) 투어 SAP 오픈에서 재미동포인 케빈 킴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 해켓과 대결서 최고 성적 내겠다”

박태환 세계수영선수권 앞두고 다짐

해켓은 자유형 1,500m 세계기록(14분34초56)을 보유하고 있다. 2001년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대회 때 세웠는데 6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박태환의 자유형 1,500m 최고기록은 작년 말 도하아시아게임 때 작성한 14분55초03.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마의 15분' 벽을 넘어섰지만 해켓의 기록에 여전히 20

초 이상 차이가 난다. 박태환에게 해켓은 여전히 우상일 수밖에 없다.

그는 그러나 "해켓과 대결이 몹시 기다려진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내년 올림픽을 위해서 나에게 2007년은 매우 중요한 해다. 기록단축을 위해 매 순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오가사와라 벤치마킹”

“밀어치기 타격 자세 참고”

산케이스포츠 보도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팀 동료인 강타자 오가사와라 미치히로(34)의 타격 자세를 배워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산케이스포츠'가 14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이승엽이 벤치마킹한 오가사와라의 타격 자세는 배팅 연습 때 버스터(버트를 대는 듯 하다 강공으로 연결하는 타격) 동작으로 왼쪽으로 밀어치는 것을 말한다.

이승엽은 13일 미야자키 선마리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타격 훈련에서 홈런 보다는 좌익수 쪽으로 가볍게 밀어치는 훈련으로